



# 낙농육우산업 전망, 결코 어둡지 않아

정 일 호

알프스운동가, 농학박사

## 1. 서론

최근에 우리 축산업계를 강타하는 것이 무엇이나 한다면 먼저 4월10일 발표된 수입쇠고기 완전 개방안 이요, 둘째는 구조조정을 내세운 폐수시설 강화책이다.

사실상 위의 2가지는 농업생산을 촉진시키고 기반 조성을 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농수산부의 실정(失政)을 단적으로 드러낸 점이 그 특징이다. 축산행정의 총책임자마저도 농민과의 대화에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국정세속에서 10년 앞의 우리나라 낙농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표명이고 보면 물가안정을 구실로 쇠고기 수입을 당연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제기획원의 입장을 우리나라 축산기반조성차원에서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선듯선듯 대답할 수 밖에 없는 그들임을 깨닫게 된다. 오늘도 폭염속에서 천직으로 알고 축산을 영위하는 우리의 축산인들에게 농정은 농정대로 공무원이기에 “축산”에 매이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대학의 관련 교수들은 그들의 삶을 위해 “탈축산”의 시도가운데 농업생명과학대학의 “동물자원학과”로 학과마저 비겁한 태도로 개칭을 하여 “축산학과”의 후배마저도 말할키는 교육정책을 실시하니 축산을 사랑하고 축산을 발전시키려는 의욕마저도 상실되고 있다.

축산인의 대변인으로서 기능을 갖추어야 할 축협중앙회마저 회원조합과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는 커녕 수입쇠고기 판매와 예대차익을 노리는 금융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그 많은 축산관련기관들이 있지만 정작 붙들고 하소연할 곳이란 전무한 실정이다.

농정당국이 생산자를 직접 독려하는 것이 어려우면 생산자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양계협회가 직접 농민들과의 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우조합” 결성은 관련법상 업종별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는 것이 농수산부의 입장이라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통일벼, 복합영농, 초지축산, 구조조정, 물가안정을 구실로한 수입쇠고기의 기반조성, 이것들이 바로 농수산부의 정책이라면 농수산부의 존립자체가 행정부 내에서 위태로울 뿐이다. 지금이라도 농정이 농민위에 군림하여 “행정지도”하겠다는 자세를 버리고 어려운 환경하에서도 농사를 짓고, 축산을 하겠다면 모든 법적인 제한요인을 농수산부가 나서서, 마치 법률앞에 떨고 있는 피고를 대변하는 변호사처럼, 대변할 수 있다면 우리의 낙농육우산업은 비전이 있는 것이다. 즉, 서투른 농정정책을 철회하는 용단이 있을 때 우리

의 낙농육우산업은 비로서 활기를 찾게 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동안 42조를 투입하여 구조개선을 하겠다는 농정에 어떠한 허점이 있으며 침체되어가는 낙농육우산업을 어떻게 하여야 발전시킬 수 있고 과연 낙농육우산업은 경쟁력이 있는 산업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 2. 본론

먼저 10년간 투입하는 42조중 대부분이 구조개선에 쓰여진다는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곳은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보조금”의 부문이 아니고 자동화 시설, 폐수등 정화조 환경시설, 유통구조개선등에 쓰여지며 특히 97년 수입최고기 전면개방을 앞두고 “탈농훈련” 및 “수입육 비축 및 운송시설”, “생산량 할당(쿼타) 제도의 기반조성”에 쓰여진다는 것이다.

경제기획원 자료에 의하면 구조조정이 끝나는 2천년에는 농민을 현재 600만에서 212만으로 줄이고 경지를 현재 1.2ha에서 2.7ha로 늘리는 것으로 되어있다. 전체인구로 보면 80년도에 28.9%에서 2000년에 5%로 1/6수준으로 감축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축산을 포함한 농업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수입최고기도 2000년에는 현재 12만 5천톤에서 34만톤으로 늘려 자급율을 26%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 농수산부가 축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칠 수 없고 농정이 경제기획원의 시너(농민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전초기지)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에 만난 축산당국자는 80년도의 소파동체현이 우려되니 “소입식자제”, “조기출하”를 유도하라고 한 바 있다. 이런 무슨 어처구니없는 발상인가? 언제 우리농민이 농정민고 농사를 지었던 말인가?

속된 말로 농정이 하라하면 농민은 안하고 하지말라 하면 하는 것이 돈을 버는 비결이라 한다.

배합사료 공장의 사료생산량이 늘고 있다. 이는 가축사육두수가 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데 확실히 농정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 축산을 살리는 길인 것이다.



농협에서 부업양축농을 보호하기 위한 사료공장신설 신청이 당국에 의해 기각되었다 한다. 외국계 사료업체는 허가를 하고, 사료도매업마저 외국에 전면 개방한 정부당국이 농민을 위한 농협의 사료공장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은 단적으로 “축산”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에게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국내 축산인들이 규모의 영세성때문에 빨리 포기한다는 고도의 계산에서 나온 정책아닌 정책인 것이다.

한우를 지키자는 자귀에는 찬동하지만 한우산업육성발전을 위하여는 저지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농수산부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10년동안 42조를 투입하는 농정의 실상인 것이다. 그러면 현단계에서 어떻게 낙농육우산업을 발전시킬 것인가? 이 문제는 지금의 농정과는 별개로 고려해 본 것이다.

### 1) 낙농산업의 활로

먼저 사료에 있어서 개체별 사양관리를 통한 산유량에 적합한 사료급여 체계 및 사료 개발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서울우유의 9단계 사료체계이다. 이것은 농가의 부산물에 알맞은 배합사료의 선택이다. 열량수준을 TDN 70~74%(3단계), 단백질수준을 CP13~21%(7단계)로 나누어 우수한 9종의 사료를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료공장에서 공급하는 3~4종류의 배합사료보다는 농가에 적용하기가 가변성(flexible)이 있어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낙농산업의 사료효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표 1) 서울우유 착유전문배합사료 특성 및 판매량

특성및판매량 품목	TDN (%)	CP (%)	91.5.31까지 판매가격(원)	91년도 판매량(톤)
착유 1호	70	13	3,409(136· <sup>36</sup> )	582
2호	70	15.5	3,440(137· <sup>60</sup> )	46
3호	70	17.5	3,615(144· <sup>60</sup> )	10
4호	72	15.5	3,625(145· <sup>00</sup> )	820
5호	72	17.5	3,945(157· <sup>80</sup> )	2,850
6호	72	19.5	4,120(164· <sup>80</sup> )	963
7호	74	16	4,326(173· <sup>04</sup> )	8,219
8호	74	18	4,460(178· <sup>40</sup> )	1,296
9호	74	21	4,697(187· <sup>88</sup> )	3,351
9개 사료	70-74%	13-21%	3,409-4,697원 (136· <sup>36</sup> -187· <sup>88</sup> )	18,137톤

방안이 되는 것이다. 참고로 영양수준과 작년도의 판매량을 보면 (표1)과 같다.

전체 판매량을 보면 91년도에 1만8천여톤으로 월 1천5백여톤을 기록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월 2천1백여톤으로 판매고가 부쩍 신장되면서 5월에는 2천4백여톤으로 작년 동기평균판매량보다 60%가 신장되어 '92년도에는 월 5천여톤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사료효율 극대화를 위한 낙농전문사료의 시대적요청에 따른 하나의 농가반응으로 보여진다. 더욱 중요한 것은 착유우의 능력이 향상되면서 사료의 품질도 높혀야 하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데 표에서 TDN 70% 보다는 TDN 74%에서 전체사료판매량의 71%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제 농가도 저렴한 가격의 사료보다는 37원정도(포대당 917원) 더 비싸지만 젖소의 능력에 맞는 고능력우 사료를 선호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낙농인이 살길이요 경쟁력이 없다는 낙농산업의 활로를 찾는 하나의 방법인 것이다.

두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농가 TMR인 것이다. 근래에 배합사료는 물론 섬유질 사료의 운반비용이 폭등하고 젖소의 생리상 조사료를 60%까지 급여하여야 하는 필연성 때문에 농가의 섬유질 사료 공장을 포함한 농가-TMR급여 체계가 확대되고 있다. (표2)는 농가의 TMR의 한 예를 보이고 있다. 피크유량 30~40kg용 선은 목장(박지혁사장)의 경우 25.5-33kg의 사료급여를 하여 총 사료비 5450원을 투자하고 있었는데 필자의 판단으로는 배합사료 위주

(표 2) 선은목장의 농가-TMR (피크유량30~40kg용)

사료명	급여량	사료비
배합사료	12-14kg	2,600원
알팔파큐브	3-5kg	1,000원
면실	0.5-1kg	250원
비트펠프	3-5kg	800원
벧짚자유급여	7-8kg	800원
합계	25.5-33kg	5,450원

사양경우 총 사료비 7,000원~7500원 정도 소요되어 농가-TMR의 경우가 33%정도 저렴한 것으로 보여 낙농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는 농가-TMR의 권장이 하나의 활로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뒤따라 사료업계는 구미의 낙농처럼 TMR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농축사료를 공급하고 정책적으로는 곡류(옥수수, 소맥, 사료용 대맥 등)를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자유공급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리라 본다.

셋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용자의 한계성이다.

낙농우유 대토론회에서 지적된 바 있지만 낙농가의 폐수시설 자금으로 농가당 300만원씩이 지원용자되고 있지만 이 금액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다. 최소한 1천여만원의 용자를 받으려면 자부담금액이 높아서 "합리적인 폐수시설"을 하기에는 아주 미흡하고 "300만원"으로 폐수시설을 하느니 그 돈을 판데쓰고 눈가리 이용식의 폐수시설을 정부가 스스로 유도한다면 이것이 또한 실정(失政)인 것이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우유생산할당제를 실시할 의도가 정말 없다면 폐수시설에 들어가는 전액을 3%로 용자하기 바란다. 이것이 바로 낙농을 살리는 길이고 낙농을 죽였던 사람들의 역대 명단에 올라가지 않는 방법의 하나 일 것이다.

## 2) 육우산업의 활로

92년도 3월 통계에 의하면 한우가 작년동기보다 18만두가 늘어난 179만두를 보이고 있다. 이는 냉동수입육에 대한 품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한 이유가 되는데 특히 금년초부터 시작된 한우쇠고기의 "Brand" 운동에 힘입은 것으로 본다.

한우는 냉동수입육에 비해 고기의 탄력성, 조직감, 품질, 색도가 우수하다는 축산시험장(92.1)의 보고가

있으며 고기 생산량에 있어서도 일본 화우에 비해 1%정도 더 높은 살코기를 생산한다.

일본의 경우 일본 고유품종 화우의 특등육은 수입 쇠고기의 7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화우보다 우수한 한우의 수요는 국내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큰 각광을 받고 있어 수출유력품목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제는 국내에서 한우를 얼마나 빨리 번식시켜 보급확대 시키느냐에 있다.

일본에 우리가 한우를 수출하였던 것이 86~89년도에 8165두를 수출한 바 있다. 이것이 중단된 것은 엔화강세도 있지만 국내수요량에도 미흡하여 수출할 것이 없다하여 수출보조금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양축농의 입장에서 한우송아지 생산에 열과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축협 한우개량단지에서 생산하는 체계를 다원화하여 기업적인 한우송아지 생산회사를 육성하고 송아지 생산 장려금도 지금의 5~10만원의 수준을 대폭 현실화하여 송아지가격이 170만원이면 20%에 상당하는 생산독려금으로 30만원정도를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 한우입식을 하고자 하는 농가에는 400kg기준 240만원시 100만원~120만원(사육기간에 따른 차이)의 차액을 유지할 수 있도록 30~50만원의 입식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면 단기적 한우산업육성활로가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쇠고기의 수요량에 걸맞는 한우공급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표3,4)는 쇠고기 자급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안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표3)를 보면 91년도 후반기에 농수산부는 235만두를 예상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92년도 3월에도 79년도 수준인 179만두 밖에 되지 않아 예측물량의 76%에 불과하여 작년도말 수입쇠고기를 예측보다 2배에 가까운 12만5천톤을 소비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92년도의 국내산 쇠고기의 총당량은 얼마나 될 것인가? (표4)를 보면 179만두가 전부 쇠고기화 될 수는 없으므로 1/3수준인 63만두가 400kg로 도살된다고 가정을 하여보면 생체에서 정육으로 바뀌는 비율을 30%로 계산한 결과 92년도 한우쇠고기 공급물량은 7만6천톤으로 환산할 수 있다. 쇠고기 수입예정량은 17만톤으로 추정되므로 총 쇠고기 수요량 24만6천

송아지 생산 장려금도 지금의 5~10만원의 수준을 대폭 현실화하여 송아지가격이 170만원이면 20%에 상당하는 생산독려금으로 30만원정도를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 한우입식을 하고자 하는 농가에는 400kg기준 240만원시 100만원~120만원(사육기간에 따른 차이)의 차액을 유지할 수 있도록 30~50만원의 입식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면 단기적 한우산업육성활로가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쇠고기의 수요량에 걸맞는 한우공급체계를 확립 할 것이다.

(표 3) 한우두수의 변화추이

	두 수	400kg산지가격	비 고
'79	165만두	66만8천원	
'81	131만두	-	'81-'84 생우수입
'84	231만두	143만1천원	총 12만9천두
'85	294만두	110만원	가격23%하락
'87	238만두	100만 1천원	
'88	203만두	120만원	
'89	205만두	173만원	
'90	213만두	192만원	
'91	235만두	215만원	92년 3월 179만두

(표 4) 쇠고기 수요량 및 공급가능량 추정

년도	쇠고기 자급도	쇠고기 수요량	한우 두수	한우쇠고기 공급가능량	늘려야하는 한우두수
1992	31%	24만6천톤	179만두	7만6천톤	-
	50%	24만6천톤	289만두	12만1천톤	110만두
2001	26%	46만톤	290만두	12만2천톤	

\* '92년기준 연간 13만8천두씩 증식요망. 그래야 자급도 26% 유지

톤 대비 쇠고기 자급도는 정부추정계수 44%에 훨씬 못 미치는 31%가 예상된다. 따라서 한우증식기반확대는 절실히되며 쇠고기자급도를 50%까지 높이기 위한 한우두수는 현 수준으로 92년도에 179만두보다 110만두가 더 사육되어야 하는 것이다.

두수의 갑작스러운 확대가 어렵고 자동차를 팔기위해 미국에서 꼭 쇠고기를 수입하여야 한다면 오히려 연변농업지구개발에 정부가 적극 참여하여 우리도 외국처럼 국내축산물공급을 위한 외국현지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

건국대 C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은 서기 2000년에 한국에 대한 쇠고기 수출물량을 34만톤으로 내정하고 쇠고기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한다. 총쇠고기 수요량 46만톤중 국내산 쇠고기가 12만톤(한우두수 290만두 추정;  $290\text{만두} \times 0.35 \times 400\text{kg} \times 0.5 \times 0.6 = 121,800\text{톤}$ ), 수입쇠고기가 34만톤으로 한우두수가 290만두로 증가(현재보다 120만두증가)함에도 자급율은 2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우비육사업의 진로는 밝다고 볼 수 있으며 정책이 이를 뒷받침할 때 쇠고기 자급도는 30%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 3. 결론 및 낙농육우산업의 전망

젖소 및 육우산업의 전망은 농정이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전망은 밝다.

동국대학교의 원유수급계획보고에 따르면 95년도에 1인당 연간 72kg 우유소비(1일 200ml)에 총량으로 3백3십8만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305일 유량에 5500kg로 나누어보면 젖소 사육두수는 61만6천두가 된다. 92년 3월 기준 49만1천두이므로 앞으로 3년동안에 최소한 12만5천두는 더 증식이 되어야 하며 평균유량도 4700kg에서 800kg정도(1일2.6kg 더증량하는 사양체계 개발) 더 높혀야 한다.

한우 시장은 건국대 C교수의 발표대로 맛에는 한우, 가격에는 수입쇠고기를 찾기 때문에 품질에서 우수하고 사료비를 지금보다 최소한 25%개선하는 사양체계를 확립하고 2000년도까지 매년 13만8천두씩 사육두수를 증가시켜야 최소한의 쇠고기 자급도를 지킬 수 있으므로 그 사양전망은 매우 밝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생산자, 생산자 단체, 유통업체, 농정이 혼신을 다하여 최선의 경주를 하여야 하며 학계는 사료효율을 증대하여 사료비를 절감하여 국제경쟁력을 배양하는 기초자료를 계속 생산하여야 할 것이다.



결코 좌절하여 축산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피나는 노력을 하여 잠시도 수입업자들에게 틈을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일본에 있어 91년도 4월 쇠고기 수입전면 개방후 전국민의 70%가 주2회이상 쇠고기 요리를 함에 있어 일본화우를 56%선호하고, 그 다음이 국내산 홀스타인 숫소비육고기를 35%선호하며 냉동수입육은 18%를 선호하였다는 일본주농(92.4.8)의 보고를 보며 우리나라의 쇠고기 소비패턴도 그렇게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화우의 사육도 92.2 현재 289만8천두로 전년 대비 3.3% 증가함으로 18년간 계속 화우두수가 증가해왔다고 보고하였으며 젖소에 있어서도 농가 1호당 40두, 연간 원유출하량 157톤(1일430kg)으로 낙농을 계속하겠다는 농가가 42%로 수입자유화 이후에도 젖소가 3%늘어난 88만6천두로 상공업선진국인 일본에서도 낙농육우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의 낙농육우산업의 전망은 밝으리라 확신한다.